
부산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대폭 준다
200건 안팎 선택과 집중...최저 지원 금액 200만원

올해 부산시의 문예진흥기금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원 대상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마감한 문예진흥기금 신청 건수와 금액은 각각 662건, 43억2천100만원으로 지난해 585건, 40억원보다 각각 13.2%, 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9개 분야별로 심의위원을 선정, 검토 작업에 들어가 2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심의 검토의 최대 특징은 부산시가 건당 최저 지원 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한 것. 부산시는 그동안 '나눠 먹기식' 배분이라는 지적의 원인이 됐던 최저 지원금 100만원을 배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 문예진흥기금 예산이 지난해와 같은 11억원(시비 7억7천만원, 국비 3억3천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지원 건수는 지난해 367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00건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단체와 개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문예진흥기금 신청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학 150건 5억3천만원, 시각 162건 9억1천100만원, 음악 95건 6억100만원, 무용 36건 5억1천900만원, 연극 40건 4억1천만원, 영화 32건 2억300만원, 전통예술 51건 4억8천700만원, 문화예술 매개 활동 58건 3억7천500만원, 중점 지원 38건 2억8천400만원 등이다. 김수진기자 kscii@